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Effects of Local Currency on Boosting Small Businesses in Gyeonggi

윤성진**·유영성***

Sungjin Yun·Young Seong Yoo

■ 목 차 ■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분석 자료 및 주요 현황
- IV. 분석 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자 조사 결과 사용 업종 및 규모를 제한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로의 구입처 변경을 유도하고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화폐는 정책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저축으로 전환(45.3%)되거나 대형매장이나 인터넷 구매, 타지역 매장에서 소비(53.7%)될 자금을 소상공인 점포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며, 2019년 1분기에서 2020년 3분기까지의 소상공인 점포 설문조사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업종별 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도 특정 업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업종에서 효과가 나타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써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시사한다.

□ 주제어: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역 활성화, 패널 GLS

* 본 논문은 경기연구원의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 코로나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2021)” 연구보고서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제1저자,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저자,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1. 8. 24. 심사기간: 2021. 8. 24. ~ 2021. 9. 24. 게재확정일: 2021. 9. 24.

This study analyzes how local currency affects the sales of small businesses. The consumer survey results show that local currency, which is limited to the available industries and sizes, increases sales of small businesses through additional consumption or change of purchase places. When allowances are paid for policy purposes in response to COVID-19, local currency helps prevent the decrease in consumption due to saving and the concentration of capital in some large stores. In a panel regression using quarterly survey data,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local currency paymen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increase in sales. The effects are evident in almost all types of small businesses.

□ Keywords: Local Currency, Small Business, Regional Revitalization, Panel
GLS

I. 서론

지역화폐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적 화폐를 말하며,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이수연, 2014; Focardi, 2018).¹⁾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한발레츠¹⁾나 '과천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화폐가 등장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화폐가 발행되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화폐 정책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기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나 지역협동조합에 의한 지역화폐와 구분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시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고 이 중 상당수가 '지역화폐'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용어의 혼용이 지속되고 있다.²⁾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각 지역의 자율성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여 각 지역의 정책 목적에 따라 유통지역, 가맹업종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속에서 2018년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14억 원이 발행되었던 지역화폐는 2019년에 들어 177개 지역에서 3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류영아, 2020).³⁾ 2020년에 이르러 전체 243개 지자체 중 228개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등 대

1) 지역화폐는 지역상품권으로도 불리며, 2020년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을 통틀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지역화폐라는 용어가 다수 통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가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8년에 이미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지역화폐라는 용어로 정의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법 시행 이후에도 지역화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해외 사례 및 공동체 중심 지역화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행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경기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인 경기지역화폐 등 다양한 종류의 지역화폐를 다루고 있다. 각각이 다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용어 사용에 있어 지역화폐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정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2)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명칭에 대하여 '00사랑상품권'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00지역화폐', '00화폐' 등의 명칭이 활용되고 있으며, '인천e음' '남해화폐 화전' 등의 명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3)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중소벤처기업부, 2018.12.20.),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중소벤처기업부, 2019.9.10.) 등에 주요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되어 있다.

부분의 지역에 보급되었으며, 발행 규모도 국비 9.2조에 지자체 자체 발행분 4.1조를 더하여 총 13.3조 원에 이르렀다(행정안전부, 2021).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화폐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2020년 4월 경기도는 소비 진작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지역·업종·기한을 제한하는 등 지역화폐의 특성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2020년 5월 약 14.2조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Kim and Lee, 2020). 즉, 지역화폐 방식을 활용한 정책적 지원금이 대규모로 지급된 것이다.

이렇듯 지역화폐가 빠르게 확대되고 지역화폐 방식을 활용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분석 자료와 방법,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화폐의 효과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강창희 외, 2020; 유영성 외, 2020; 송경호·이환웅, 2020).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지원 수단으로써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을 매출액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지역화폐의 정책적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 조사 결과를 함께 활용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나 정책효과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지역화폐를 사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기존 소비 대체, 구입처 변경, 추가소비 등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정책적 지원이 지역화폐로 이루어질 경우와 현금으로 이루어질 경우를 비교하여 정책지원 수단으로써의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용 가능 점포를 매출액 기준 10억 미만 점포로 제한하고 있어 본 연구가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⁴⁾ 둘째,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도입된 2019년부터 이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4) 지역화폐 가맹점 조건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업종 규제만 존재하고 매출액이나 고용 인원 등 점포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지역도 존재한다.

화폐를 활용한 정책적 지원은 지역화폐의 확산 측면에서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김병조 외, 2020; Kim and Lee, 2020). 셋째, 경기도는 2020년 4월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분기별 분석을 수행하는데 보다 나은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일 뿐 아니라 지역화폐의 판매실적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낸다는 점도 고려되었다.⁵⁾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지역화폐와 관련한 주요 이론과 사례를 설명하고,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한 실증 연구의 흐름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자료인 소비자 조사와 소상공인 점포 조사 자료를 살펴본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매출 증감, 지역화폐 발행 등 관련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며 분석자료의 경향성을 파악한다. 제Ⅳ장에서는 소비자 조사와 소상공인 점포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주요 시사점을 기술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지역화폐의 주요한 특징은 지역 안에서 유통되며, 유통과정에서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조재욱, 2013). 이러한 특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등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론적 기원은 Silvio Gesell의 자유화폐(free money)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다. Gesell(1916)은 화폐는 축적의 대상이 아닌 교환의 도구이며, ‘감자처럼 썩고(rots like potatoes), 철처럼 녹슬어(rusts like iron)’ 시간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이후 매월 1%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독일 Schwanenkirchen 마을의 상품화폐인 Wara와 오스트리아 Wörgl 지역의 대안화폐로 이어져 실현되었다(Fisher et al., 1933; Focardi, 2018). 오스트리아 Wörgl 지역은 이러한 방식의 ‘노화하는 화폐(aging money)’를 활용하여 적은 재원으로 도로 수리 및 수도 개선 등 다양한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었다(Fisher et al., 1933). 이에 대하여 Lietaer(1999)는 Wörgl 사례를 통해 일반화폐에 비해 대안화폐가 12~14배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Fisher et al.(1933)은 경기 순환이 느려지는 불황 시기의 경우 소멸성 화폐가 법정화폐에 비해 최대 12배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화폐는 오늘날

5) 행정안전부(2021)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판매액은 총 2.5조 원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며, 모든 시·도 중에 가장 높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WIR, 영국의 Brixton Pound, 독일의 Chiemgauer, 미국의 Ithaca HOURS나 Time Bank,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Community Exchange System(CES), 엘살바도르의 puntoTRANSacciones 등이 있다(Kennedy et al, 2012; 김병조 외, 2020).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 '미래화폐'라는 공동체 화폐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한발레츠'나 '과천 품앗이'와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이 운영하는 지역화폐가 운영되었다(조재욱, 2013). 이러한 초기 지역화폐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사회 운동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국내외 사례 소개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 내 수평적 호혜 관계와 상호부조 강화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자본의 역외 유출 감소, 지역 상권 활성화, 매출 및 고용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강수돌, 2002; 류동민·최한주, 2003; 천경희·이기춘, 2005; 한성일, 2013).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문헌 고찰이나 사례 분석에 머물러 있다면, 최준규·전대욱(2018)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영리 단체인 '과천 품앗이'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아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천품앗이 공동체는 지역화폐를 통해 참여가 구당 2.7만 원/월, 공동체 전체로 402.5만 원/월의 부가가치 또는 가계소득 증가분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화폐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도입방안 및 기대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존재한다(고태호, 2011; 남영식, 2019; 김수은 외, 2019).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도입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효과와 지역 자원 활용과 순환 및 지역 소비 역외 유출 방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화폐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몇몇 실증연구들이 시도되었으나 자료 등의 한계로 인해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병기 외(2017), 여효성·김성주(2019) 등은 지역화폐 효과가 존재함을 다루고 있다. 이병기 외(2017)는 도입 시기, 외지 방문객 판매 정도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춘천, 화천, 양구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예산 지출 대비 6.3~15.9배에 달함을 보였다. 특히 도입 첫해인 춘천의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소득 증대 효과가 0.21만 원/년 수준이지만 도입 후 10년이 넘은 화천과 양구는 각각 22.9만 원/년, 43.5만 원/년으로 지역화폐의 제도 정착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남을 보였다. 여효성·김성주(2019)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발행액 자료를 기초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화폐 발행액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소비지출 증가를 분석한 낙관적인 안에 따른 효과

의 경우 생산유발액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3,837억 원, 취업유발인원 29,360명으로 추산하였으며, 평균 한계소비성향 0.466을 적용하여 분석한 보수적인 안의 경우 생산유발액 89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87억 원, 취업유발인원 820명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지역화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결과도 존재한다. 강창희 외(2020)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별·산업소분류별 종사자 규모에 대해 이중차분법(DID)을 수행하여 지역화폐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사한 방식으로 총매출액에 대하여 분석한 송경호·이환웅(2020)은 2011~2018년 기업등록부 DB를 시군구·산업소분류 단위로 집계하여 삼중차분법을 수행하였으나 지역화폐 효과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소상공인 점포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지역화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결과도 발견되었다. 유영성 외(2020)는 경기도 소상공인 점포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화폐 이용 경험과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가 매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냄을 보였다. Kim and Lee(2020)는 성남시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책지원이 고용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용 효과의 경우 2015~2016년 기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2015~2017 기간의 정책 효과 분석에서는 1.7%의 유의한 고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매출액의 경우 5.0~5.9%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im and Lee(2020)는 고용 효과에 대해서만 규모별 접근을 보이고 있는데, 5인 이하 점포에서는 2015~2016 및 2015~2017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2.8~2.9%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5인 이하 점포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책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송경호·이환웅(2020)의 연구에서 업종 구분 과정에서 규모가 통제될 수 있는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나타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각종 정책수당 지급 방식으로써의 지역화폐를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한주·김병조(2017)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주장하며,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의 정책수당 중 보편성, 효율성, 규모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초연금의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 기존의 현금 지급에 비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모두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훈·박누리(2018)는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과 산모 건강지원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1조 3,01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27억 원, 취업유발효과 7,861명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나타남을 밝혔다.

이러한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책수당 지급 경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및 소비 위축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Kim and Lee(2020)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사용 업종 및 규모, 지역, 시기 제한 등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다룬 연구 결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미루·오윤해(2020)는 8개 카드사 합산자료에 기초하여 사용 불가업종을 대조군으로 사용하는 합성대조방법을 적용하여 이중차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4조 원의 카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투입재원 대비 26.2~36.1% 수준의 소비 진작 효과를 보여 해외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을식 외(2020)는 수도권 8,488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지역의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으며,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을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은 45.0%, 이에 소득감소까지 반영할 경우 5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에서 24.3%, 일본의 정액 급부금 정책에서 25.0%의 한계소비성향을 보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지역화폐 효과를 다룬 연구 흐름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많은 연구가 사례 소개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최근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계량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충분한 자료와 정책 대상 및 목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효과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해 지역화폐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분석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정책 대상을 산업 전체 측면으로 볼 것인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지역화폐의 효과 발생 과정의 작동 원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지역화폐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분석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을 다루는 연구들과 차별된다. 둘째, 소상공인 점포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역 및 산업 단위 분석과는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소비자 대상 조사를 활용하여 정책효과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기존 소비 대체, 구입처 변경, 추가소비 등 소비자 행동 변화를 다룬다.

Ⅲ. 분석 자료 및 주요 현황

본 연구는 각각 소상공인 점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두 종류의 자료를 활용한다. 먼저 소상공인 점포 자료는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도입 이전인 2019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조사한 자료로 경기도 소상공인과,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연구원, 리서치 전문회사 아테나컴퍼니 등이 조사에 참여하였다.⁶⁾ 설문 문항은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매출액 변화를 알기 위해, 지역화폐 결제액, 지역화폐 결제 고객, 월평균 매출액, 종사자 수 등과 지역, 상권 유형, 점주 업력, 점포업종과 같은 점포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기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가 포함되었다. 연구의 주요 변수인 지역화폐 매출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대상 업체들로부터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역화폐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코나아이DB의 지역화폐 실제 결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래 조사대상인 3,800개 점포 중 정보제공 동의를 얻은 점포는 2,781개이며, 2019년 1분기에서 2020년 3분기까지 7개 분기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⁷⁾

월평균 지역화폐 결제액과 매출액 등의 경우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일 뿐 아니라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관련된 데이터와 함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월평균 지역화폐 결제액에 대한 점포별 응답 평균은 61.2만 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그림 1>과 같으며, 2019년 2분기에 지역화폐가 도입되어 2020년 1분기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 2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3분기 들어 다시 줄어드는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실제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된 지역화폐 사용액 추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⁸⁾

6) 2020년 3분기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파악을 목적으로 조사 시기를 앞당겨 7, 8월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7) 정보제공에 동의한 2,781개 점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코나아이DB에 기초하여 지역화폐 결제액을 비롯하여 소재지역, 상권유형, 업종, 점포유형 등을 확인하여 설문으로 인한 불성실 응답의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다만,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의 경우 설문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특정 시점에는 조사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성실 응답이 발생한 경우가 나타나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패널 이탈이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폐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매출액 효과 분석 결과에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의 경우 본래 조사대상 중 33개 점포만이 폐업으로 확인되어 폐업으로 인한 자료 이탈 문제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8) <그림 2>의 경우 코나아이DB를 활용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총액에 대해 분기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2020년 3분기의 경우 7, 8월 2개월치 결과만이 합산되어 분기별 평균을 다룬 <그림 1>에 비해 다소

2020년 2분기의 큰 폭의 상승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힘입은 바가 크다. 코나아이 DB에 따르면 4,605억 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었으며, 2,530억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었다. 이후 사용 기한인 8월 이내에 재난기본소득은 4,564억 원, 긴급재난지원금은 2,518억 원 사용되어 사용률이 각각 99.1%, 99.5%에 달하였다. <그림 3>과 <그림 4>는 지원금의 사용 추이를 보기 위하여 2020년 1월에서 8월까지 경기도 지역화폐의 발행 및 사용 금액 추이를 주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시기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 발행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빠른 소비 효과를 나타내어 지원금의 87.5%가 2분기 이내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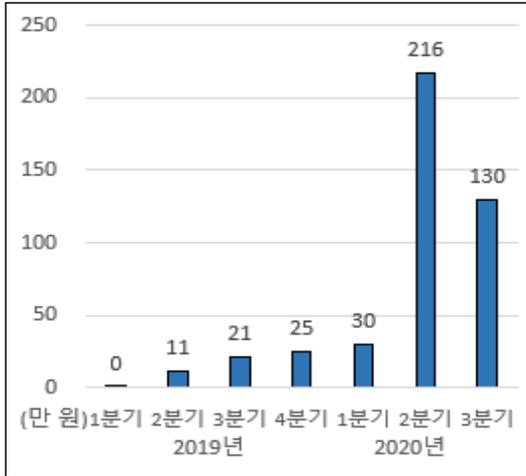
〈표 1〉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설문조사(소상공인) 기초통계량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월평균 지역화폐 결제액(백만원)	19,461	0.612	1.945	0	51.658	
업종별 지역화폐 결제액 상호작용항 (백만원)	음식점	19,461	0.151	0.652	0	18.967
	스넥(빵, 커피 등)	19,461	0.052	0.378	0	12.548
	농축산물	19,461	0.098	1.043	0	50.334
	편의점	19,461	0.048	0.396	0	13.582
	슈퍼마켓	19,461	0.045	0.903	0	51.658
	의류,잡화,직물	19,461	0.108	0.954	0	49.335
	학원(유치원, 유아원 등)	19,461	0.002	0.120	0	9.755
	병원,약국	19,461	0.018	0.369	0	29.188
	보건,위생(미용, 안경, 화장품)	19,461	0.046	0.481	0	21.620
	서적, 문구, 사무용품	19,461	0.005	0.151	0	10.250
	가전,주방,가구	19,461	0.004	0.148	0	12.943
	레저,문화,취미	19,461	0.004	0.082	0	6.374
	기타	19,461	0.030	0.364	0	18.766
종사자 수(명)	13,658	2.312	1.355	1	10	
월평균 매출액(백만원)	13,393	16.916	16.688	0.05	185	
점주업력(년)	19,459	10.437	9.600	0	63	

낮게 나타나지만, 총액과 평균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사한 추이다. 코나아이DB에는 코나아이 기반으로 운영하지 않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의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액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역화폐 유형(종이류, 카드, 모바일) 중 카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발행 및 사용액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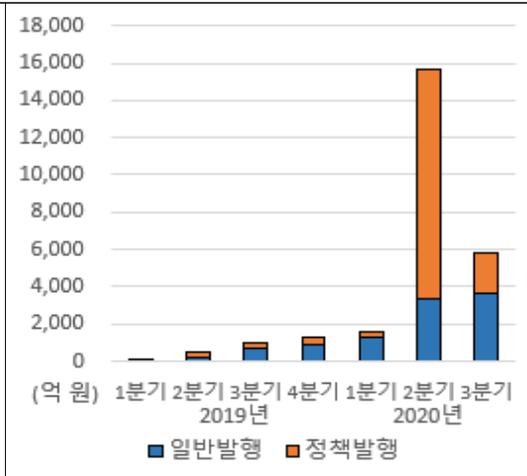
변수명		빈도	%	변수명		빈도	%	
지역 더미	가평군	518	2.7	점포 유형	일반점포	14,014	72.0	
	고양시	385	2.0		프랜차이즈	5,453	28.0	
	과천시	658	3.4	상권 유형	일반상점가	10,913	56.1	
	광명시	546	2.8		전통시장	5,810	29.9	
	광주시	532	2.7		골목상권	2,744	14.1	
	구리시	490	2.5	점포 업종	음식점	6,188	31.8	
	군포시	630	3.2		스넥(빵, 커피 등)	2,226	11.4	
	김포시	980	5.0		농축산물	1,463	7.5	
	남양주시	637	3.3		편의점	1,477	7.6	
	동두천시	546	2.8		슈퍼마켓	581	3.0	
	부천시	567	2.9		의류.잡화.직물	3,479	17.9	
	성남시	749	3.9		학원(유치원, 유아원)	21	0.1	
	수원시	665	3.4		병원.약국	385	2.0	
	시흥시	693	3.6		보건.위생 (미용, 안경, 화장품, 사우나 등)	1,708	8.8	
	안산시	987	5.1		서적, 문구, 사무용품	182	0.9	
	안성시	833	4.3		가전.주방.가구	182	0.9	
	안양시	770	4.0		레저.문화.취미	308	1.6	
	양주시	385	2.0		기타	1,267	6.5	
	양평군	567	2.9					
	여주시	637	3.3					
	연천군	581	3.0					
	오산시	644	3.3					
	용인시	735	3.8					
	의왕시	623	3.2					
	의정부시	588	3.0					
	이천시	581	3.0					
	파주시	532	2.7					
	평택시	616	3.2					
	포천시	350	1.8					
	하남시	714	3.7					
화성시	728	3.7						

〈그림 1〉 점포별 월평균 지역화폐 결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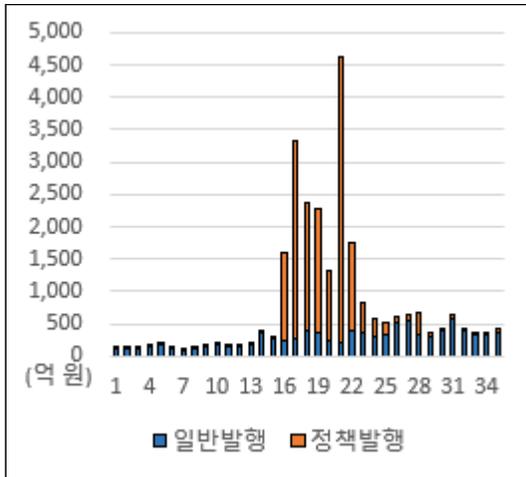
자료: 소상공인 점포 조사

〈그림 2〉 경기도 지역화폐 분기별 사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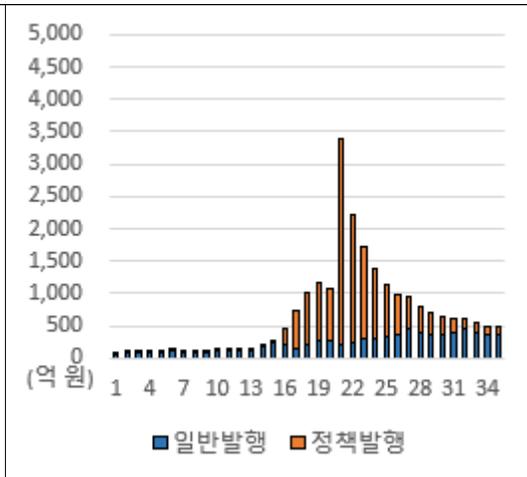
자료: 코나아이 DB

〈그림 3〉 경기도 지역화폐 주별 발행액



자료: 코나아이 DB

〈그림 4〉 경기도 지역화폐 주별 사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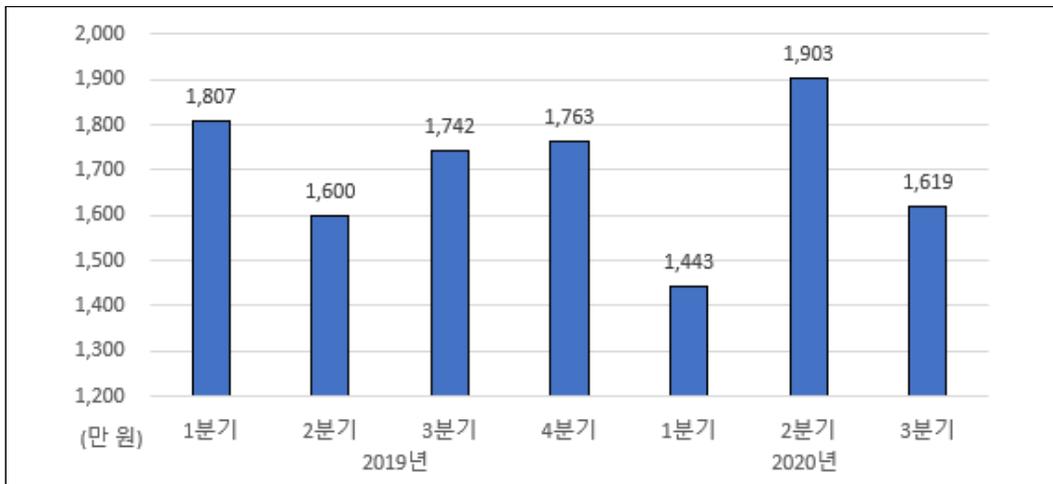


자료: 코나아이 DB

기존에 지급되던 청년기본소득 및 산후조리비를 더하여 2020년 1월에서 8월 동안 지급된 정책발행 지역화폐는 1조 7,122억 원이며 같은 기간에 1조 4,911억 원이 사용되어 경기도 지역화폐 총 발행의 63.9%, 사용의 64.3%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 정책발행 지역화폐 비중이 발행의 40.5%, 사용의 37.8%인 것에 비해 높아진 수치이다. 한편 일반발행 지역화폐의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분기 222억 원에 불과했던 일반발행 지역화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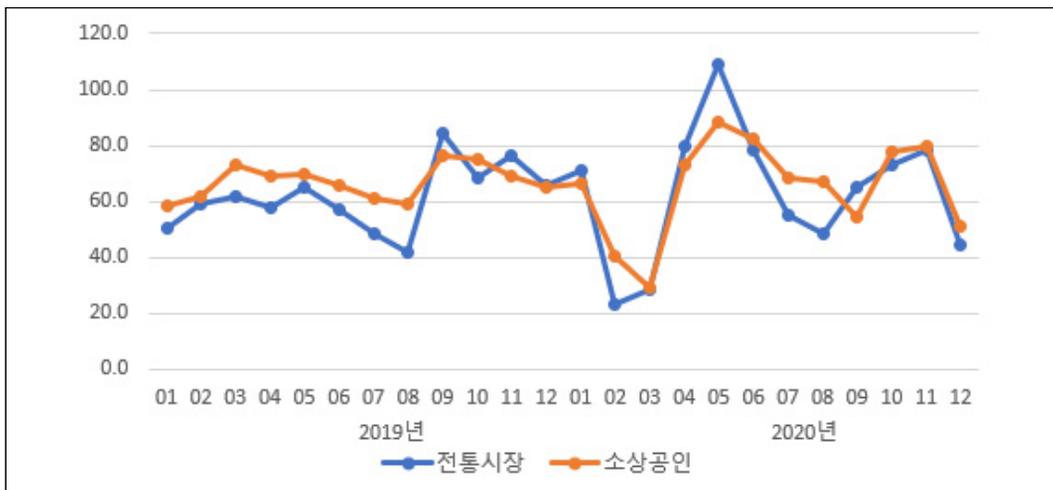
용액은 2020년 1분기 1,310억 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장하였다. 2020년 2분기에 이르러 3,330억 원이 사용되어 2.54배 사용액이 늘었고, 7, 8월에도 3,627억 원이 사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책지급으로 인한 지역화폐 이용 경험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급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경기도 소상공인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 추이



자료: 소상공인 점포 조사

〈그림 6〉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체감 매출 추이(BSI)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본 연구의 소상공인 조사대상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은 1,691.6만 원이며, 이를 분기별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분기에 큰 폭의 매출 하락이 나타나지만 2020년 2분기에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시장경기 동향조사』 결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1분기에 급격한 하락을 보였으나 2020년 2분기는 전년 동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표 2>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매출액에 대하여 ‘감소’, ‘변화없음’, ‘증가’로 설문한 결과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2020년 1분기에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응답이 73.2%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 2분기에는 40.5%의 점포에서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20년 3분기에는 57.1%가 ‘변화없음’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모두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의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업종·규모·시기 등을 제한하여 지급한 지원금의 효과성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해석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강도 등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방역 조치에 따른 업종별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표 2>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매출액 변화 응답

구분	감소	변화없음	증가	합계	구분	감소	변화없음	증가	합계
2019년 1분기	1,536 (58.9)	886 (34.0)	185 (7.1)	2,607 (100.0)	2020년 1분기	2,562 (73.2)	760 (21.7)	178 (5.1)	3,500 (100.0)
2019년 2분기	1,397 (55.6)	878 (35.0)	237 (9.4)	2,512 (100.0)	2020년 2분기	1,102 (31.5)	981 (28.0)	1,417 (40.5)	3,500 (100.0)
2019년 3분기	1,899 (56.1)	1,306 (38.6)	181 (5.3)	3,386 (100.0)	2020년 3분기	798 (35.3)	1,291 (57.1)	173 (7.6)	2,262 (100.0)
2019년 4분기	1,815 (53.4)	1,455 (42.8)	130 (3.8)	3,400 (100.0)	합계	11,109 (52.5)	7,557 (35.7)	2,501 (11.8)	21,167 (100.0)

한편 소비자 조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2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22일~8월 25일에 걸쳐 조사한 자료이다.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리서치 전문기관 아테나컴퍼니가 조사하였다. 앞서 살펴본 소상공인 점포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 만족도, 이용실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정책 평가 및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성별, 연령, 거주지 등 인구학적 자료를 기초로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주요한 응답 결과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표 3〉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설문조사(소비자) 기초통계량

변수명		빈도	%	변수명		빈도	%
연령	20대	896	28.0	성별	남자	1,516	47.4
	30대	909	28.4		여자	1,684	52.6
	40대	602	18.8	거주지역	가평시	29	0.9
	50대	483	15.1		고양시	209	6.5
	60대	310	9.7		과천시	34	1.1
혼인상태	미혼	1,183	37.0		광명시	95	3.0
	기혼	1,957	61.2		광주시	103	3.2
	기타	60	1.9		구리시	67	2.1
가구주 여부	가구주	1,564	48.9		군포시	92	2.9
	가구원	1,636	51.1		김포시	104	3.3
학력	중졸 이하	43	1.3		남양주시	150	4.7
	고졸	852	26.6		동두천시	36	1.1
	대졸(재학 포함)	2,079	65.0		부천시	181	5.7
	대학원졸(재학 포함)	226	7.1		성남시	209	6.5
직업	자영업자	361	11.3		수원시	211	6.6
	사무직군	1,387	43.3		시흥시	128	4.0
	노무직군	248	7.8		안산시	157	4.9
	서비스직군	305	9.5		안성시	57	1.8
	전업주부	429	13.4		안양시	147	4.6
	학생	275	8.6		양주시	65	2.0
	기타/무응답	195	6.1		양평군	33	1.0
	월평균 소득	50만원 내외	415		13.0	여주시	42
100만원 내외		224	7.0	연천군	20	0.6	
200만원 내외		806	25.2	오산시	80	2.5	
300만원 내외		683	21.3	용인시	180	5.6	
400만원 내외		459	14.3	의왕시	62	1.9	
500만원 내외		341	10.7	의정부시	124	3.9	
700만원 내외		207	6.5	이천시	66	2.1	
기타/무응답		65	2.0	파주시	106	3.3	
가구원수	1인 가구	362	11.3	평택시	128	4.0	
	2인 가구	522	16.3	포천시	47	1.5	
	3인 가구	1,017	31.8	하남시	84	2.6	
	4인 이상 가구	1,299	40.6	화성시	154	4.8	

IV. 분석 결과

1. 소비자 이용 실태 및 행동 변화

지역화폐가 본래의 정책적 목표에 맞춰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이용이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먼저 소비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소비자 만족도, 정책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 지역화폐의 기존 소비 대체율, 지역화폐 활용을 위한 구입처 변경을 통한 소비, 정책발행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 소비율, 정책 수단 발행 수단 변화에 따른 행동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표 4>와 같으며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 응답 비율은 정책 전반이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시 혜택(56.4%), 가맹점 이용(53.6%), 구입 방식(53.2%)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화폐 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부정 응답의 경우는 가맹점 이용이 16.9%로 가장 높고, 사용 시 혜택(14.1%), 구입 방식(12.0%), 정책 전반(6.6%) 순으로 나타났다. 송경호·이환웅(2020) 등에서 제시된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업종이나 규모 등으로 가맹점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지역화폐 소비자 만족도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정책전반	681(21.3)	1,587(49.6)	721(22.5)	172(5.4)	39(1.2)
구입방식	518(16.2)	1,183(37.0)	1,115(34.8)	330(10.3)	54(1.7)
가맹점이용	412(12.9)	1,301(40.7)	948(29.6)	447(14)	92(2.9)
사용시혜택	533(16.7)	1,270(39.7)	946(29.6)	338(10.6)	113(3.5)

〈표 5〉 지역화폐 정책효과 설문 결과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소득 보전 효과	1,095 (34.2)	1,419 (44.3)	536 (16.8)	121 (3.8)	29 (0.9)
소상공인 매출 증가	1,163 (36.3)	1,402 (43.8)	492 (15.4)	121 (3.8)	22 (0.7)
소상공인 고용 증가	856 (26.8)	1,162 (36.3)	792 (24.8)	314 (9.8)	76 (2.4)
지역경제 활성화	836 (26.1)	1,333 (41.7)	724 (22.6)	246 (7.7)	61 (1.9)

정책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긍정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매출 증가(80.2%), 소득 보전 효과(78.6%), 지역경제 활성화(67.8%), 소상공인 고용 증가(63.1%)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높은 수치이지만 각각의 항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정책발행 지역화폐의 경우 소득을 보전하여 소비 여력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고용 유발을 유도하며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구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득 보전이나 소상공인 매출액의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한 동의는 높게 나타나지만 고용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역화폐 이용으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화폐 이용 확대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금 등 다른 수단과의 대체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액 전체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여효성·김성주(2019)의 낙관적 시나리오에 대하여 송경호·이환웅(2020)은 대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주된 관심이 전체 소비 변화에 있지 않고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소비로 국한될 경우, 지역화폐 사용액 중 기존에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하던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화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래 소비하려고 했던 소비금액을 지역화폐로 대체하여 소비하였다”는 문항에 대해 기존 현금 및 카드 소비와 지역화폐 사용에 의한 소비가 별개이면 0%, 완전히 대체하면 100%로 응답하게 하여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역화폐의 기존 소비 대체율은 평균 64.8%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35.2%는 기존에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되지 않던 금액이 구입처를 변경

하거나 소비액을 늘려 소상공인 점포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⁹⁾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활용을 위해 기존 물품의 구입처를 지역화폐가 사용 가능한 구입처로 변경하였다”는 문항을 설정하고 0%에서 100%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5.3%를 제외한 응답자 대부분이 구입처 변경 경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58.5% 수준이었다. 또한 51.8% 수준의 경우 앞으로도 기존 물품 구입처를 지역화폐가 사용 가능한 구입처로 변경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지역화폐 이용으로 인한 소상공인 점포로의 유입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상권에 대한 발굴 효과가 나타나 지역상권에의 이용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지역화폐 이용으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0%	25%	50%	75%	100%	평균
지역화폐의 기존 소비 대체율	219 (10.5)	666 (32.0)	686 (32.9)	389 (18.7)	124 (6.0)	64.8%
지역화폐 활용을 위한 구입처 변경	171 (5.3)	534 (16.7)	1,025 (32.0)	978 (30.6)	492 (15.4)	58.5%
향후 지역화폐 활용을 위한 구입처 변경	282 (8.8)	674 (21.1)	1,116 (34.9)	793 (24.8)	335 (10.5)	51.8%

〈표 7〉은 정책발행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화폐의 확산에 있어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등 정책발행의 역할이 크고,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책발행 지역화폐의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각종 정책 수당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었을 때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 수당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소비자 행동 변화를 설문하였다. 정책 수당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는 저축전환율은 평균 45.3%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10억 미만의 지역상권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하기보다 대형매장이나 인터넷 구매, 타지역 매장 등에서 소비하겠다는 응답도 53.7%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화폐가 저축이나 소상공인

9)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소진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중단될 경우 기존 소비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는 기존소비대체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2020년 31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만이 인센티브 소진을 경험하였고 소진시기도 11월 말에서 12월 말에나 나타나, 설문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소진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경험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득구간별 지역화폐의 기존 소비 대체율 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소비 규모에 따른 기존소비대체율의 차이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향후 지역화폐 발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공인 이외에서의 소비가 가능한 현금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책적 측면에서는 단순 현금 지급에 비해 소비 진작이나 소상공인 보호와 같은 추가적인 정책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책발행 지역화폐는 단순히 대형 점포나 타지역에 소비될 정책수당을 유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발행 지역화폐 소비액 이상으로 현금, 카드, 일반발행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추가소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정책발행 지역화폐로 받은 금액의 사용에 따라 현금, 카드, 일반발행 지역화폐 등을 이용하여 받은 금액 이상으로 추가소비하였다”는 질문을 통해 0%에서 100% 범위로 추가소비율을 설문하였고, 평균 44.4%로 응답하였다.¹⁰⁾ 추가소비율이 소득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소득구간별 추가소비율을 정리한 것은 <표 8>과 같다. 소득구간을 200만 원 내외 이하로 응답한 집단과 300만 원 내외 이상으로 응답한 집단을 나누어 이표본 t-검정(two-sample t test)을 수행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지원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Baker et al., 2020). 그러나 본 연구의 추가소비율의 경우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소비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추가소비 여력이 큰 중산층 이상에서 더 많은 추가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정책발행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0%	25%	50%	75%	100%	평균
정책수당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저축전환률	573 (17.9)	741 (23.2)	938 (29.3)	617 (19.3)	331 (10.3)	45.3%
정책수당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 이외 소비 비율	170 (5.3)	703 (22.0)	1,128 (35.3)	876 (27.4)	323 (10.1)	53.7%
정책발행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소비율	219 (10.5)	666 (32.0)	686 (32.9)	389 (18.7)	124 (6.0)	44.4%

10) 일반적으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을 분석할 때 있어 한계소비성향을 활용한다(박기백, 2016). 그러나 위에서 도출한 추가소비율의 경우 정책발행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에서 추가적으로 소비한 것에 국한하고 있어 일반적인 한계소비성향과 비교하기 어렵다. 김미루·오윤해(2020)의 경우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소비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구하고 있으나, 보급의 정도나 결제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 사용액을 일반화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의 추가소비율의 경우 정책발행 지역화폐가 지급됨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에서 얼마만큼의 소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매출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업종·규모·지역·시기 등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화폐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며, 지역화폐의 한계소비효과도 김을식 외(2020)에서 밝힌 한계소비효과 29.1~58.3% 수준으로 예상된다.

〈표 8〉 소득구간별 정책발행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소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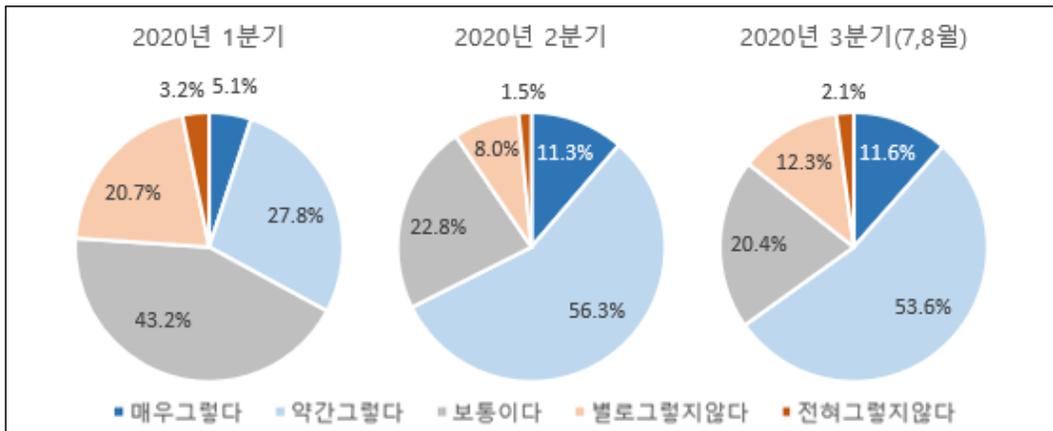
(단위: %)

50만 원 내외	100만 원 내외	200만 원 내외	300만 원 내외	400만 원 내외	500만 원 내외	700만 원 내외
40.1	41.2	42.9	46.1	47.8	47.1	47.6

2.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앞서 살펴본 소비자 행동 변화에 이어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 및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7〉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가 귀 점포의 매출액(회복,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2020년 1분기의 경우 ‘긍정’ 응답은 32.9%, ‘부정’ 응답은 23.9%로 나타났으나, 2분기에 들어 ‘긍정’ 응답은 67.6%로 증가하였고 ‘부정’ 응답은 9.5%로 감소하였으며, 3분기의 경우 ‘긍정’ 응답 65.2%, ‘부정’ 응답 14.4%로 다시 ‘긍정’ 응답은 감소하고 ‘부정’ 응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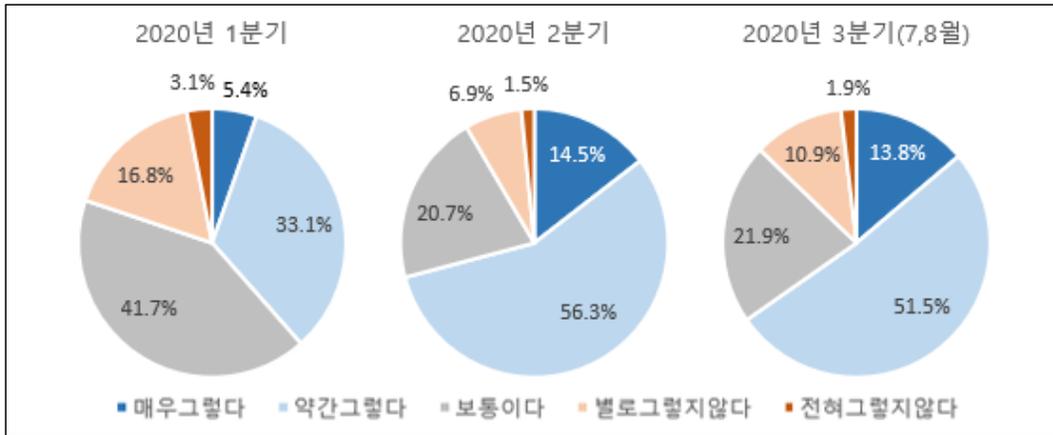
〈그림 7〉 지역화폐의 해당 점포 매출액 회복 및 증가 도움 정도



자료: 소상공인 점포 조사

한편 <그림 8>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점포가 아닌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설문한 결과이다.¹¹⁾ 전반적으로 점포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나, 지역화폐가 응답자의 점포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0년 1분기의 경우 긍정 응답은 38.5%, 부정 응답은 19.9%로 나타났으나, 2분기에 들어 긍정 응답은 70.8%로 증가하였고 부정 응답은 8.4%로 감소하였으며, 3분기의 경우 긍정 응답 65.3%, 부정 응답 12.8%로 다시 긍정 응답은 감소하고 부정 응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8> 지역화폐의 지역상권 도움 정도



이러한 응답 결과는 2020년 2분기 정책발행 지역화폐의 증가로 급증하고 3분기에 다소 감소하는 지역화폐 사용액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지역화폐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체감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 GLS를 수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소상공인 설문조사 자료는 2019년 1분기에서 2020년 3분기까지 기간 동안 분기별로 점포를 대상으로 수집된 패널 자료이다. 패널 자료는 일반적 OLS회귀모형에서 전제된 동분산성(homoskedasticity)과 자기상관이 없어야한다(no autocorrelation)는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식 (1)과 같이 오차항의 패널 개체 간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가정하고, 식 (2)와 같이 오차항의 자기상

11) “경기지역화폐가 귀 점포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관을 패널 개체별로 다른 1계 자기상관계수를 적용한 패널 GSL 방식을 활용한다.

$$var(\epsilon_{it}) = \sigma_i^2 \quad (1)$$

$$\epsilon_{it} = \rho_i \epsilon_{i,t-1} + \nu_{it} \quad (2)$$

본 연구는 지역화폐의 매출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점포 i 의 t 시점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의 자연로그 값인 $\ln(sale_{it})$ 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식 (3)과 같이 구축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ln(lc_{it})$ 는 점포 i 의 t 시점 분기별 월평균 지역화폐 매출액의 자연로그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β_1 은 본 연구의 핵심적 모수로 앞서 소비자 분석에서 살펴보았던 기존 소비 대체율과 구입처 변경 비율, 추가소비율 등이 혼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만약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의 100%가 기존 소상공인 점포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이용하던 소비를 대체하였다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 β_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화폐 이용을 위해 구입처를 변경하거나, 지역화폐 이용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에 방문하여 지역화폐 이용액 이상으로 추가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매출액 증가 효과로 이어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ln(sale_{it}) = \beta_0 + \beta_1 \ln(lc_{it}) + \beta_2 \ln(emp_{it}) + \beta_3 (old_{it}) + \delta_{fran} + \delta_{area} + \delta_{ind} + \delta_{region} + \delta_t \quad (3) \\ + (\lambda_{1,region} \cdot t + \lambda_{2,region} \cdot t^2) + (\gamma_{1,ind} \cdot t + \gamma_{2,ind} \cdot t^2) + \epsilon_{it}$$

그 외 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먼저 점포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점포별 종사자수($\ln(emp_{it})$), 업력(old_{it}), 점포 유형 더미(δ_{fran}), 상권유형 더미(δ_{area}), 업종 더미(δ_{ind})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소재지에 따라 나타나는 매출액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별 더미변수(δ_{region})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 시간 불변 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시점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분기별 더미변수(δ_t)를 활용하여 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지역·업종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지닐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2차 형식의 시군구 단위 지역별 추세($\lambda_{1,region} \cdot t + \lambda_{2,region} \cdot t^2$)와 업종별 추세($\gamma_{1,ind} \cdot t + \gamma_{2,ind} \cdot t^2$)를 추가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변수별 이상치와 결측치를 제거한 2,769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9〉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역화폐 결제액은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역화폐의 이용이 소상공인

점포에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소비를 온전히 대체하지 않고 유입시키거나 추가적인 소비를 유발하여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추세선과 업종별 추세선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추정치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월평균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0.096~0.1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화폐 결제액이 1% 증가할 때, 매출액은 0.1% 증가한다는 결과이다. 분석자료의 지역화폐 결제액 평균이 61만 원이고 월평균 매출액은 1,692만 원으로 약 27.6배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 결제액의 매출액 견인 효과가 상당함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화폐가 2019년 2분기 도입되었고, 이후 보급되는 과정에서 전분기 대비 22.9~118.3% 수준의 사용액 증가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2020년 2분기에는 전분기대비 871.4%의 지역화폐 사용이 증가하였다. 즉, 지역화폐 사용의 증가가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통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유의미한 증대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상황에서 크게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액 효과

변수명	(1)	(2)	(3)	(4)
지역화폐 결제액($\ln(lc_{it})$)	0.096*** (0.001)	0.100*** (0.001)	0.099*** (0.001)	0.101*** (0.001)
종사자 수($\ln(emp_{it})$)	0.526*** (0.002)	0.523*** (0.002)	0.528*** (0.003)	0.529*** (0.002)
점주업력(old_{it})	Y	Y	Y	Y
점포유형(δ_{fran})	Y	Y	Y	Y
상권유형(δ_{area})	Y	Y	Y	Y
점포업종(δ_{ind})	Y	Y	Y	Y
지역고정효과(δ_{region})	Y	Y	Y	Y
시간고정효과(δ_t)	Y	Y	Y	Y
지역별추세($\lambda_{1,region} \cdot t + \lambda_{2,region} \cdot t^2$)	N	Y	N	Y
업종별추세($\gamma_{1,ind} \cdot t + \gamma_{2,ind} \cdot t^2$)	N	N	Y	Y

지역화폐의 효과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화폐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밝힌 송경호·이환웅(2020)의 경우에도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서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김미루·오윤해(2020)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효과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식 (4)와 같은 모형을 구축하였다. 식 (3)에서의 주요 설명변수인 지역화폐 결제액 변수 $\ln(lc_{it})$ 대신 업종별 터미 변수와 지역화폐 결제액을 곱해서 만든 업종별 지역화폐 결제액 상호작용항 ($\ln(lc_{it}) \cdot ind$)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업종별 지역화폐 결제액 상호작용항의 계수인 α_{ind} 는 업종별 지역화폐 효과를 의미한다.

$$\ln(sale_{it}) = \beta_0 + \alpha_{ind} \ln(lc_{it}) \cdot ind + \beta_2 \ln(emp_{it}) + \beta_3 (old) + \delta_{fran} + \delta_{area} + \delta_{ind} + \delta_{region} + \delta_t + (\lambda_{1,region} \cdot t + \lambda_{2,region} \cdot t^2) + (\gamma_{1,ind} \cdot t + \gamma_{2,ind} \cdot t^2) + \epsilon_{it} \quad (4)$$

업종별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가전·주방·가구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서적·문구·사무용품, 보건·위생 등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¹²⁾ 특히 분석 기간 내 코로나19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급격한 경제적 변화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영향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난 상황에서 업종별 추세를 통제 한 후에도 지역화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서만 효과를 나타내었던 송경호·이환웅(2020)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송경호·이환웅(2020)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음식점, 보건·위생, 레저·문화·취미 업종 등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 기간과 대상 지역, 방법 등에서 기인 할 수도 있으나, 가장 주요한 차이는 규모의 통제로 보인다. 송경호·이환웅(2020)은 지역화폐에 노출이 높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 등 규모를 통제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점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업종에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구분되어 규모가 통제되는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과는 이어진다.

12) 가전·주방·가구 업종의 경우 업종별 추세를 포함하지 않은 열 (1), (2)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업종별 추세를 통제한 열 (3), (4)에서 음(-)의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표 10〉 지역화폐의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효과

변수명		(1)	(2)	(3)	(4)
업종별 지역화폐 결제액 상호작용항 ($\ln(lc_{it}) \cdot ind$)	음식점	0.085*** (0.001)	0.085*** (0.001)	0.089*** (0.001)	0.089*** (0.001)
	스넥(빵, 커피 등)	0.087*** (0.001)	0.085*** (0.002)	0.089*** (0.001)	0.087*** (0.001)
	농축산물	0.101*** (0.001)	0.099*** (0.001)	0.099*** (0.001)	0.099*** (0.001)
	편의점	0.082*** (0.003)	0.080*** (0.003)	0.081*** (0.003)	0.079*** (0.004)
	슈퍼마켓	0.079*** (0.002)	0.081*** (0.003)	0.077*** (0.002)	0.082*** (0.004)
	의류, 잡화, 직물	0.105*** (0.002)	0.104*** (0.002)	0.102*** (0.002)	0.103*** (0.002)
	학원 (유치원, 유아원 등)	0.075*** (0.015)	0.072*** (0.015)	0.077*** (0.015)	0.074*** (0.015)
	병원, 약국	0.039*** (0.004)	0.037*** (0.004)	0.036*** (0.002)	0.033*** (0.003)
	보건·위생 (미용, 안경, 화장품, 사우나 등)	0.144*** (0.002)	0.142*** (0.003)	0.146*** (0.002)	0.143*** (0.003)
	서적, 문구, 사무용품	0.174*** (0.01)	0.173*** (0.009)	0.162*** (0.005)	0.160*** (0.005)
	가전, 주방, 가구	-0.024*** (0.006)	-0.023*** (0.006)	-0.010 (0.011)	-0.010 (0.011)
	레저, 문화, 취미	0.112*** (0.01)	0.111*** (0.012)	0.112*** (0.004)	0.110*** (0.004)
기타	0.110*** (0.001)	0.110*** (0.001)	0.100*** (0.001)	0.101*** (0.001)	
종사자 수($\ln(emp_{it})$)	0.524*** (0.002)	0.526*** (0.003)	0.525*** (0.002)	0.529*** (0.003)	
점주업력(old_{it})	Y	Y	Y	Y	
점포유형(δ_{fran})	Y	Y	Y	Y	
상권유형(δ_{area})	Y	Y	Y	Y	
점포업종(δ_{ind})	Y	Y	Y	Y	
지역고정효과(δ_{region})	Y	Y	Y	Y	
시간고정효과(δ_t)	Y	Y	Y	Y	
지역별추세($\lambda_{1,region} \cdot t + \lambda_{2,region} \cdot t^2$)	N	Y	N	Y	
업종별추세($\gamma_{1,ind} \cdot t + \gamma_{2,ind} \cdot t^2$)	N	N	Y	Y	

V. 결론

본 연구는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성을 소상공인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소비자 조사와 소상공인 점포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보였다. 먼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로의 소비자 유입을 유도한다. 지역화폐 활용을 위한 구입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지역화폐 이외 현금, 카드를 이용한 추가소비도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자 행태 변화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패널분석을 활용한 양적인 접근뿐 아니라 소상공인 설문을 통한 체감 측면에서도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지역화폐의 매출 증가 효과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으며, 음식점에서부터 레저·문화·취미 업종까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는 정책수당의 지급 수단으로도 유용성을 보였는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저축되거나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될 자금이 소상공인으로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화폐와 유사하게 사용 업종, 지역, 기한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나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해외 유사 사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활동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되는 가운데 임대료 등 높은 고정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화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년에는 3,714억 원 발행되었으나, 2019년 3.2조, 2020년 13.3조로 급증하였다. 2021년에는 국비 지원으로 15조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금액을 더하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 2021).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지역화폐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지역화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점포 단위 설문 조사에 기초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발행과 일반발행에 대한 효과를 구분해내기 어려우며, 기존소비 대체, 구입처 변경, 추가소비 등 다양한 소비자 행태 변화로 인한 효과가 혼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루어진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분석이 아닌 점포 단위 분석을 수행하여 전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향후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파악하거나 유사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의 효과 비교를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다만, 투입 예산 대비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매출액 효과 외에도 소비 활성화, 분배 효과, 지역 상권 보호 등 다양한 편익 항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적절한 편익 항목을 검토하고 타당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전국적 현상이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기도 이외 지역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역 정책적 성격을 갖는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함께 있는 경기도를 다룬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서울과 높은 연계를 보이는 경기도 고유의 특성이나 사용가능한 점포의 매출액 규모를 제한하고 각종 정책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있어 인구밀도나 업종 분포, 상권 규모, 점포 규모 등 지역적 특성과 함께 발행 규모, 사용 가능 업종, 가맹점 현황 등 지역화폐 정책의 운영적 측면에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의 타지역 소비 및 타지역 주민의 해당 지역 소비 등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지역화폐 정책으로 인한 지역적 유불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는 향후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보호가 주된 정책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본 연구는 이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고민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지역상권 보호 및 공동체성 함양, 점포 다양성 등 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사회적 문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지역화폐와 관련한 풍성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돌. (2002). 이윤과 권력을 넘어서는 레츠 운동. 『문화과학』, 32: 127-147.
- 강창희·강지원·김성아. (2020).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고태호. (2011). 「제주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
- 김미루·오윤해. (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정책포럼』, 281.
- 김병조·양준호·유영성·이기송·이상훈·김호균·김재영. (2020). 「뉴머니, 지역화폐가 온다」. 서울: 다할미디어.
- 김수은·김시백·안동신. (2019). 「전라북도 지역상품권 운영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 김을식·강정한·조무상·김숙영·송준모·유정균·이성우·배영임·최성환·유영성·김재신·신혜리·박민지. (2020).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경기연구원.
- 남영식. (2019).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 방안 연구」. 대중세전연구원.
- 류동민·최한주. (2003). 지역통화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발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9(1): 85-106.
- 류영아. (2020).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760.
- 박기백. (2017). 소비 성향 변화의 분해. 『경제학연구』, 65(1): 79-102.
- 송경호·이환웅. (2020).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여효성·김성주. (2019).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유영성·윤성진·김태영·김병조·마주영. (2020).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2019년 1~4분기 종합」. 경기연구원.
- 이병기·전대욱·고경훈·김진위·최인수. (2017).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상훈·박누리. (2018).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청년배당 등 정책수당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 이수연. (2014).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분석. 『잇북: 지역화폐 A to Z』.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한주·김병조. (20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재욱. (2013). 새로운 화폐정치의 공간 만들기: 지역화폐제 도입을 통한 보완경제의 가능성 시탐. 『비교민주주의연구』, 9(1): 37-68.

- 천경희·이기춘. (2005). 지역화폐운동의 소비문화적 의미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93-611.
- 최준규·전대욱. (2018).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과천 품앗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9(1): 5-30.
- 한성일. (2013). 지역화폐운동과 지역경제: 독일 Regiogeld와 영국 Transition currency. 『지역사회연구』, 21(4): 191-217.
- 행정안전부. (2021). 「지역사랑상품권 13.3조원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온기 불어넣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14.
- Baker, S. R., R. A. Farrokhnia, S. Meyer, M. Pagel, and C. Yannelis. (2020). Income, Liquidity, and the Consumption Response to the 2020 Economic Stimulus Paymen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7097.
- Fisher, Irving., H. R. Cohnsen, and H. W. Fisher. (1933). *Stamp scrip*. NY: Adelphi Company.
- Focardi, S. M. (2018). *Money: What It Is, How It's Created, Who Gets It, and Why It Matters*. London: Routledge.
- Gesell, Silvio. (1916). *The Natural Economic Order*. translated by P. Pye. London: Peter Owen Ltd.
- Kennedy, M., B. A. Lietaer, and J. Rogers. (2012). *People money: The promise of regional currencies*. Devon: Triarchy Press Limited.
- Kim, Moon Jung. and Soohyung Lee. (2020). Can Stimulus Checks Boost an Economy under COVID-19?: Evidence from South Korea. *IZA Discussion Paper*, 13567.
- Lietaer, Bernard A. (1999). *The Future of Money: How New Currencies Create Wealth, Work and Wiser World*, London: Random House.

윤 성 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세입자 권리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거시경제변동과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2021)”, “Neighborhood Effects of Housing Program using Jeonse in Korea(2021)”, “민간등록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세입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sungjin@krihs.re.kr).

유 영 성: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환경 및 응용 경제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서 기본소득연구단장 역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초연결사회, 녹색경제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뉴머니, 지역화폐의 현재와 미래(2021)”, “답이 있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설계와 세제 개혁(2021)”,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2020)” 등이 있다(ysyoo@gri.re.kr).

